

## 기계학습 프로그래밍 감상문

<"이 3가지는 필수" 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202336089 사혜현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유튜브 머니 인사이드에서 강의하신 이 동영상은 영상 초반부터 GPT를 검색 도구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직접 나만의 프로젝트 경험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과정을 꼭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형식으로 기술적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실패하였고, 인간이 배우는 과정을 모방해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게 하면서 인공지능은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에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루는 멀티모델로 확장이 되었다. 또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에서 생각하는 모델로 발전하여 깊게 생각을 하면서 환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ChatGPT를 2023년부터 써왔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옳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코딩보다는 인문이나 수학 문제에서 틀린 답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오히려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에서 ChatGPT를 사용을 거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자료가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대답을 잘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이 내용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할 때 없는 논문들을 알려주는 걸 보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한 것 같다.

또한 김대식 교수님이 미래에는 진지한 대화는 인공지능하고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나는 ChatGPT하고 학업적인 이야기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공지능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 사람들은 공감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조언을 얻고 싶은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나도 미래에는 그런 진지한 사적인 대화까지 인공지능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인공지능이 삶에 깊이 들어올 것 같다.

김대식 교수님은 3가지 AI 사용법을 제안했는데, AI 에이전트 사용, 바이브 코딩, 생성 AI로 단편 영화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나는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은 해본 적이 있는데, 생성 AI는 잘 다루지 않는 편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기회에 생성형 AI로 사진과 영상을 한 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판단력을 제시하였다. AI가 수많은 결과물을 내놓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의 결과물을 선택하는 능력은 기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중국, 미국 등을 따라가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의 결론은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먼저 그리고 깊게 활용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AI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AI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해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좋았다.